

전남도, 친환경선박 산업 새 장 열었다

목포 삼진산단서 친환경 연료추진시스템 실증선 진수식 기술 개발·기업 지원 등 신기술 상용화 후속사업 추진

대한민국 친환경 선박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친환경 선박 연료추진시스템 실증선이 목포에서 진수식을 갖고 첫 항해를 시작했다.

전남도는 31일 목포시 삼진산단에서 수소, 배터리, 하이브리드, 암모니아 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추진시스템을 탑재해 실증할 선박 진수식을 개최했다.

진수식에는 김용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흥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최준근 한국메이드 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진수식은 새로 만든 선박을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행사다.

친환경 선박 연료추진시스템 실증선은 혼합연료 해상실증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길이 82.6m, 폭 18m, 2천600t 규모의 해상 실증선을 건조해 수소,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 암모니아 엔진 등 다

양한 친환경 연료추진시스템을 탑재해 시험한다. 실증선은 승선 인원 25명, 선속 12.5kts의 성능을 갖췄다.

연구 개발 과제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암모니아, 이차전지, 수소 등 3종 이상의 친환경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실증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남도는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목포는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 개발, 선박

용 전기 추진 시스템 시험·평가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진수식을 계기로 친환경 연료 추진 기술을 앞당겨 개발하고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과 시험평가 설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등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후속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해상 실증선이 대한민국 친환경 선박 산업을 이끌 선도 모델이 될 것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기업 유치를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등 서남권 조선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道, 어르신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유형별 사례·대처법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전남도는 31일 “11월부터 진도를 시·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36.4%)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노년층 인구가 거주하는 만큼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6월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와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을 하고 시·군 노인복지관과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며 금융 상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12회 실시했다.

11월에 진도에서 다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재개해 2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서는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 및 피해 사례,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유형별 사례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법을 안내하고 어르신이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 금융문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어르신 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지식이 취약한 중·고등학생, 취업 준비 청년 대상으로도 금융 교육을 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예방 교육, 찾아가는 출장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금융부자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道, 구제역 백신 모니터링 실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31일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소와 염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검사는 10월1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구제역 백신농가 접종과 야외 바이러스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올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 소규모 농가 등이다. 소 50마리 미만 202농가, 전염농 202농가, 염소 300마리 미만 36농가, 전염농 18농가 등 전체 458농가가 해당된다.

검사 결과,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백신 재접종 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양시원기자



완강기 사용법 체험 31일 오후 시청 야외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린 화재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에 참여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완강기 사용법을 체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

유관기관 간담회 열어 대응 방안 논의

전남도와 영광기독병원(광역새싹지킴이병원)은 3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지역새싹지킴이병원, 시·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아동 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새싹지킴이병원 운영 활성화 방안, 새싹지킴이병원-유관기관 간 유기적 의료협력체계 구축, 의료인 아동 학대 대응 전문성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의료현장 아동 학대 판단·대응 사례 및 유형별 아동 학대 사례를 공유하고

새싹지킴이병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시·군,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영광기독병원을 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 고난도 아동 학대를 치료·자문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치료·보호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나주 에너지산단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7년 10월까지... 토지 매매 시 나주시 허가 받아야

전남도는 31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11월1일부터 2027년 10월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심리 속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에너지밸리와 전력 반도체·나노융합소체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천7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천45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천7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전남도는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 속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기 목적의 거래 사전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시, 드론 활용 공무원 양성 교육

오늘까지 북구 드론공원서

광주시는 31일부터 이틀간 북구 드론공원에서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행 실습 중심의 ‘드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고정밀 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공공분야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드론의 이해, 항공안전법, 조

종자 준수사항, 드론을 활용한 업무 사례 등 이론 교육과 비행원리 및 조종법을 익히는 현장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지적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는 광주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박성강기자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전국 및 각 지방지사

취/금/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카트리지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임대 • A/S
• 전선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각종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대명OA T.375-5880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길 바라며 동기간 내 신고가 없는 경우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은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산20
2. 분묘 기수: 14기 (무연분묘: 6기, 무연분묘: 8기)
3. 개장 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을 원칙으로 하나 합의가 안될 시 임의 개장 후 지정 안치장으로 안치함. 무연분묘: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개장 사유: 재산권 행사
5. 안치 장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로 933-43 상삼주모공원
6. 안치 기간: 안치 후 5년
7. 공고 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 처: 전용법, 정경진 010-5631-9339
9. 신고 요령: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사건 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혹보, 제적등본, 사진확인서,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위 신고제에 신고바람.

2024년 11월 1일
위 공고인: 전 용 법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돈
받아 드립니다

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월산동 무진중앙 주거2종 대지152㎡ 신축건물87㎡
주차3대(추가가능) 식당, 대리점, 수리점 최적
재개발추진지 급매4억1,000만원

광주역앞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 등 최적
급매3.3당 1,200만원(조정가)

산수동 2차선 버스길접 33,900㎡
급매3.3당200만원
타운하우스,요식타운,위락단지,노유자휴양단지 등 최적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금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